

## Global Market Report

---

# 2016 브렉시트 결정 이후 주요국·기업 반응 조사

---



## 목 차

### 요 약

---

#### I. 영국 / 1

---

- |   |                    |
|---|--------------------|
| 1 | 1. 현지 시장 반응        |
| 2 | 2. 정부 및 유관기관 반응    |
| 4 | 3. 영국진출 우리기업 반응    |
| 5 | 4. 영국 바이어 및 투자가 반응 |

#### II. 유럽 / 6

---

- |    |                    |
|----|--------------------|
| 6  | 1. 현지 시장 반응        |
| 7  | 2. 각국 정부 반응        |
| 8  | 3. EU 기관 반응        |
| 9  | 4. 유럽진출 우리기업 반응    |
| 12 | 5. 유럽 바이어 및 투자가 반응 |

#### III. 기타 주요국 / 15

---

- |    |       |
|----|-------|
| 15 | 1. 미국 |
| 21 | 2. 일본 |
| 27 | 3. 중국 |

## 요 약

### 1. 브렉시트에 따른 시장 반응

- 증권시장 : 주요 지수 일제 하락(6.24 기준)

| 연번 | 주요 지수                        | 동향                                       |
|----|------------------------------|------------------------------------------|
| 1  | EURO STOXX 50                | 전일대비 약 9% 하락                             |
| 2  | 영국 FTSE 100                  | (영국 11시 기준) 전일대비 4% 하락                   |
| 3  | 독일 DAX                       | 전일대비 9.9% 대폭 하락 후, 소폭 회복하여 전일 대비 7.0% 하락 |
| 4  | 미국 Dow Jones, NASDAQ, S&P500 | 3~4% 폭락                                  |
| 5  | 일본 Nikkei 225                | 7.9% 하락, 16년 2개월 내 최대 하락                 |
| 6  | 상하이 Composite                | 1.3% 하락                                  |
| 7  | 홍콩 Hang Seng                 | 2.9% 하락                                  |

- 현물시장

- (국제유가) 영국 브렌트유의 배럴당 가격은 6% 이상 하락하여 48달러선 붕괴
- (금 현물시세) 대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값은 온스당 1,350달러로 급등

- 외환시장

- (파운드화) 장중 10% 가까이 폭락, '85년 이래 최저 수준인 파운드당 1.33달러까지 급락
- (그 외) 미달러 및 엔화가치 급등

<브렉시트 결정 이후 주요국 환율동향>

| 통화           | 환율      | 증감률    |
|--------------|---------|--------|
| 유로(EUR/USD)  | 1.1133  | △2.20% |
| 파운드(GBP/USD) | 1.3635  | △8.34% |
| 원(USD/KRW)   | 1173.76 | 2.80%  |
| 엔(USD/JPY)   | 102.25  | △3.67% |

\* 뉴욕시간 6월 24일 오후 3시 17분 기준

### 2. 영국/유럽 진출 우리기업 반응

- 파운드화 가치하락에 따른 對EU수출 가격경쟁력 및 수익구조 악화 우려
- 단, 현지진출 우리기업들은 현재까지 생산량 조정 등의 구체적 전략변경은 고려치 않고 있음. 대부분 충격 속에서도 큰 동요 없이 차분하게 사태를 예의 주시 중.
- (금융)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 없으나 장기적으로 런던거점 전략 재검토 전망
- (제조) 자동차, 전자 등 영국발 수요감소 등이 유럽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질까 우려
- (물류) 영국-대륙 간 물동량 감소, 영국의 독자적 통관제도에 따른 통관지연 우려

### 3. 주요국 기업 반응

- (유럽) EU 역내 거점전략 변경 및 수정 움직임.
- (미국) 對영 투자기업의 EU내 영국 매출 비중이 높아 민감, 구조조정 불가피
- (일본) 엔고현상이 가장 큰 직격탄, 영국 내 공장보유 기업들 역내 거점이전 고려
- (중국) 대형 고속철 사업 차질 우려, 부동산 투자기업 직접적 피해 예상

## I

## 영국

## 1. 현지 시장 반응

## ○ 주식시장

-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지수인 FTSE 100은 개장 직후 8%이상 급락, 영란은행(BOE) 총재의 유동성 공급 발언으로 낙폭을 4~5% 수준으로 좁힘.
- FTSE 250(상위 100개를 제외한 250개 상장기업)지수도 장 초반 11.4% 까지 추락하며 사상 최대 하락폭 기록

## ○ 현물시장

- (국제유가) 런던 ICE 선물시장의 8월 인도분 영국 브렌트유의 배럴당 가격은 6% 이상 하락하여 48달러선 붕괴
- (금 현물시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대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값은 온스당 1,350달러로 급등

&lt;국제유가(브렌트유) 가격 추이&gt;



&lt;온스당 금 현물시세 추이&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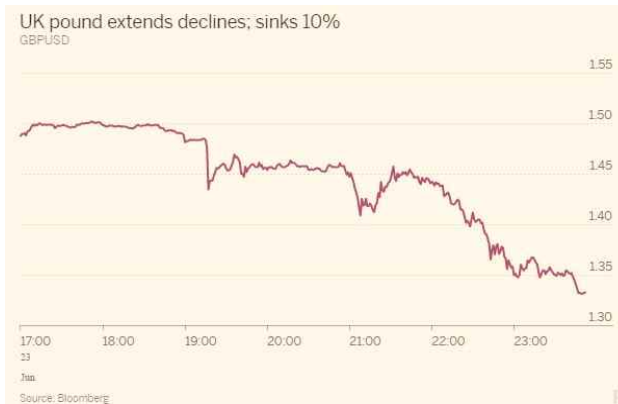


자료원 : Financial Times

## ○ 외환시장

- 6.24(금) 파운드화 가치는 장중 10% 가까이 폭락하여 파운드당 1.33달러 기록, 1985년 이래 최저 수준, 1971년 이래 1일 내 최대하락폭 기록
- 도이체방크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파로 파운드화 가치는 현재 하락치에서 15% 더 하락하여 파운드당 1.15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 예측

## &lt;1파운드당 달러화 변동 추이&gt;



자료원 : Financial Times

## &lt;1971년來 가장 큰 1일 '급락폭'&gt;

| British pound, biggest one-day falls on record |                   |            |             |
|------------------------------------------------|-------------------|------------|-------------|
| Rank                                           | Date              | Close, pts | Performance |
| 1                                              | 24 June 2016      | 1.35*      | -9.26%      |
| 2                                              | 16 September 1992 | 1.7850     | -4.05%      |
| 3                                              | 04 June 1981      | 1.9400     | -3.77%      |
| 4                                              | 05 January 1978   | 1.8865     | -3.75%      |
| 5                                              | 01 November 1976  | 1.5875     | -3.68%      |
| 6                                              | 20 January 2009   | 1.3928     | -3.41%      |
| 7                                              | 18 December 2008  | 1.5015     | -3.35%      |
| 8                                              | 09 January 1992   | 1.8160     | -3.35%      |
| 9                                              | 01 December 2008  | 1.4884     | -3.21%      |
| 10                                             | 06 September 1985 | 1.3250     | -2.93%      |

\*Intraday trade, Since 1971

@PeterWells, FT, Bloomberg

## 2. 정부 및 유관기관 반응

## □ 영국 정부 공식 성명 발표

- 캐머런 영국 총리는 투표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현지시각 오전 8시 20분 성명을 통해 오는 10월 보수당 전당대회 전에 총리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
- 캐머런 총리는 국민들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향후 EU 탈퇴를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시기를 결정하는 문제부터 EU와의 탈퇴 협상 자체도 새로운 총리가 맡아야 한다고 탈퇴 이유를 밝힘. 다만 자신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며 향후에도 영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캐머런 총리는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전히 자신은 영국이 EU내에서 더 안정적으로 변영할 수 있다고 믿지만, 영국은 경제 펀더멘털이 강하고 당장 이동의 자유 등 제약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며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도 포함.
- 보수당이 승리한 2015년 영국 총선은 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 개정애 따라 실시된 첫 번째 총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책임론과 맞물려 새로운 정부가 EU와의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조기총선 가능성도 존재

## □ 정치권

### ○ 보수당

- 보리스 존슨 前 런던시장,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 등 EU탈퇴를 지지했던 84명의 보수당 의원들은 투표종료 즉시 국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캐머런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 전달, 투표 결과 발표 후 캐머런 총리의 성명을 제외하면 잠잠한 상황
- 탈퇴진영을 이끌었던 보리스 존슨 前 런던시장의 차기 총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음.

### ○ 노동당

- 노동당 의원들 사이에서 투표결과에 대해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잔류진영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당내 비난여론이 거센 상황
- 코빈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브렉시트의 책임을 물어 캐머런 총리가 조기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 영국독립당

- EU탈퇴를 주도한 나이절 패라 영국독립당 대표는 브렉시트가 확정되자 “오늘은 영국 독립기념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국민투표 승리를 선언함.
- 또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브렉시트를 실현할 수 있는 새 정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캐머런 총리의 사퇴를 촉구

## □ 학계 및 연구기관

###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Mark Littlewood 원장

EU탈퇴 결정은 향후 영국이 자유무역협정 등을 좀 더 글로벌한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며 향후 정부는 EU와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단, EU 탈퇴를 규정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급하게 발동할 필요는 없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University of Surrey) Simon Usherwood 정치학과 교수  
EU와 더 많이 얽혀있을수록 EU 탈퇴가 더 어려움. 유로존 국가들의 경우가 그러하나 독자적인 화폐를 사용하는 영국은 상황이 다름. 선거결과 탈퇴진영이 국가 전역에 만연한 EU회의론을 업고 승리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강하게 반영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 □ 유관기관

- 주영 중국대사관
  - 현지진출 중국기업들의 특이동향은 없으며 현재 사태를 예의주시 중.
  - EU 탈퇴까지 2년 간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해당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수립할 예정
  - 중국의 영국 진출기업은 금융, 부동산, 석유화학, 자산투자 등 분야에 진출 비중이 높아 현재 진행 중인 비즈니스에는 별 영향이 없음.
- JETRO
  - 브렉시트가 일본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현재는 엔고가 더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

## 3. 영국진출 우리기업 반응

- (A社 - 자동차 관련) 자사 수출품목 관련 영국의 수입처는 대부분 EU, 한국, 중국이어서 향후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경쟁력의 변화가 예상되며, 당 사는 결제를 파운드화로 하고 있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됨.
- (B社 - 자동차) 대외변수도 중요하지만, 브렉시트로 인한 대출이자 상승, 주택가격 하락, 고급인력 유입감소에 따른 영국 내 소비심리 위축이 제품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됨.
- (C社 -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EU 국가들이 영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또는 계획 중인데 브렉시트로 인해 향후 관세인상 및 인력 교류 제약이 있게 되면 산업 전반의 침제로 이어질 수 있음.

- (D社 - 금융) 브렉시트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금융 중심지로서 영국이 제공하던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영국에 유럽 거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
- (E社 - 금융) 단기적으로 해당 분야 우리 기업의 영국 탈출은 없을 것으로 보나, 주 고객인 영국 진출 우리 기업들의 경영 피해가 클 경우 자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4. 영국 바이어 및 투자가 반응

### □ 바이어

- (F社 - 식품 유통/제조) 파운드 가치 하락에 따라 제조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질 것이 우려되며, 이를 제조사에 전가하지 않으면 제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 따라서 한국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볼 예정. 또한 장기간 거래해온 제조사들과의 관계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신규 거래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지가 고민임.
- (G社 - 항공우주/방위산업) 동 사의 CEO는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향후 영국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유럽 방산기업들과의 협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까 우려됨.
- (H社 - 정밀기계부품) 브렉시트가 실현되는 과정에 적어도 2년은 소요될 것이므로 그간 대비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도 2년 후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음.

### □ 투자가

- (I社 - 레저산업) 한국의 테마파크에 투자한 기 투자가로 對한국 투자는 한국시장을 보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투자 결정에도 변화는 없을 예정. 또한 투자자금도 영국에서만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서 큰 문제는 없음.



## II

## 유럽 주요국

## 1. 현지 시장 반응 (6.24일 기준)

## □ 브렉시트 발표 이후 주요국 주가 대폭 급락

## ○ (주식시장) 주요국의 주가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

| 연번 | 주요 지수                      | 동향                                                 |
|----|----------------------------|----------------------------------------------------|
| 1  | EURO STOXX 50 <sup>1</sup> | 전일대비 약 9% 하락                                       |
| 2  | 독일 DAX                     | 전일대비 9.9% 대폭 하락 후,<br>소폭 회복하여 전일 대비 7.0% 하락        |
| 3  | 프랑스 CAC40                  | (영국 11시 기준) 전일대비 8.38% 하락                          |
| 4  | 네덜란드 AEX                   | 전일대비 9% 폭락하며 개장                                    |
| 5  | 이탈리아 FTSE MIB              | 23일 <sup>2</sup> 전일대비 3.71% 상승하며 마감,<br>24일 11% 폭락 |

1) 유럽 대표 50개 주식을 대표하는 주가지수

2) 'EU내 잔류'가 우위를 보이는 출구조사 발표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자료원 : Financial Times 등

## ○ (개별종목) 전종목 하락, 금융주 타격이 가장 크고, 소비재주 양호

(단위 : %)

| 구분  | 국가   | 기업명           | 주가동향  |
|-----|------|---------------|-------|
| 금융업 | 독일   | Deutsche Bank | ▽15.1 |
|     |      | Commerz Bank  | ▽13.0 |
|     |      | Allianz       | ▽9.9  |
|     | 네덜란드 | ING 그룹        | ▽14.4 |
| 소비재 | 독일   | Henkel        | ▽0.1  |
|     |      | Adidas        | ▽2.6  |

자료원 : Financial Times 등

## 2. 각국 정부 반응

- 공통적으로 브렉시트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향후 EU의 내부 개혁 및 단결 강화를 위한 신중한 현황 분석이 있어야 함을 지적
- 6월 27일(월) 베를린에서 브렉시트 대응책 논의를 위한 주요 3개국+EU의회간 회동 (독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이탈리아 렌치 총리,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

### □ (독일) 메르켈 총리

- “오늘은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에 타격이 있는 날” 이라고 유감 표명, “EU는 브렉시트에 적절히 대응할 만큼 강하다,” “조급한 결론을 내리기는 시기상조이며, 현재 EU가 처한 현황에 대해서 침착하고 신중하게 분석해야 할 것,” 유럽연합의 현황 분석 및 재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함을 강조
- 분석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3대 사항 제시
  - 1) EU가 각 회원국의 개인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느끼도록 해야 함.
  - 2) 회원국이 협력할 때 주요 경제 · 정치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무대에서 협상력을 키울 수 있음.
  - 3) 유럽연합은 전쟁이 지속된 유럽에서 ‘평화 이념’의 상징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 □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 유감을 표명하며 유럽연합의 개혁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함을 표명
- 올랑드 대통령의 우려 사항 : EU에서의 극단주의 및 포퓰리즘 확대, 유럽방위체제의 붕괴, 여타 회원국들의 EU 탈퇴 도미노 현상, 경제·문화·인적 자유, 유통 제도의 붕괴, 유로존 체제 약화 및 탈퇴 움직임, 경기 침체 및 젊은이들의 일자리 감소, 글로벌 금융 위기 등

### □ (이탈리아) 파도안 경제부 장관

- 주요 교역국중 하나인 영국으로의 수출 감소가 우려되나, 브렉시트가 이탈리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다만, EU의 모델 개선은 불가피

## □ (네덜란드) 뤼터 총리

- 영국의 EU 탈퇴로 실망감은 크지만, EU 개혁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함.
- 넥시트(Nexit)는 없을 것, EU 잔류 의지 표명
- EU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6월 28일 브뤼셀 회원국 정상회의에 앞서, 금일(6.24일) 오전 EU 집행위원장등 고위 지도자들과 브뤼셀에서 회동

## □ (체코) 제만 대통령

- “난민에 대한 두려움이 브렉시트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영국의 이번 결정에 실망”

## 3. EU 기관 반응

### □ (EU이사회·의회·의장국·집행위) 합동성명(6.24, 오전 10:45)

- 브렉시트 가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나 영국의 결정을 존중. 전례가 없는 상황에 연합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힘.
- 아울러 영국 정부에 가능한 조속히 탈퇴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함. 절차는 리스본 협약 50조에 명시된 대로 진행될 것이며, EU는 절차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힘.

### □ (EU이사회) 도널드 투스크 상임의장

- “브렉시트가 역사적인 순간임에는 분명하나” EU는 이러한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해왔음을 밝히고, EU의 리더들을 대표하여, 오늘부로 EU는 27개국으로 나아갈 것을 표명
- “브렉시트로 인한 법률적인 공백은 없을 것이며 영국의 EU 탈퇴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EU법은 영국에 지속 적용 될 것”이라고 확인

## □ (EU 집행위) 통상총국(DG Trade) 한국 담당자

- 브렉시트 발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 브렉시트에 따른 향후 EU와 영국간 통상관계 관련, ‘노르웨이처럼 EEA 등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영국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함.

### < 유럽경제지역 (EEA : European Economic Area) ('94.1~) >

-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이면 가입자격이 주어지는 유럽단일시장
- EU 비회원국도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역내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단, EU의 농업 및 어업 등 관련법 등은 적용 제외
- 주요회원국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이상 EFTA), 독일, 프랑스 등

- 한편, 한국과 EU FTA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추정하기가 어렵고, 영국- EU 간 협상 진행상황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

## □ (유럽의회) 마르티 술츠 의장

- EU의회에서 6.28(화)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 대한 긴급회의를 소집 발표

## 4. 유럽진출 우리기업 반응

- 영국은 중요한 수출시장이나, 당분간 큰 타격은 없는 것으로 예상  
\* '15년 한국의 영국 수입시장점유율 1.4%(16위, 73억 달러), 對EU 수출총액 중 영국 비중은 15.3%(1위)
- 향후 유럽연합-영국간 협의 내용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며, 금일 본사로부터 받은 별도의 지침이나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음.
- 특히 2년간 EU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별다른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 \* 프랑크푸르트 소재 유럽총괄 법인 5개사

### ○ (A社 유럽총괄 판매법인 - 전자제품)

- 추후 가격경쟁력 약화 및 수익구조 악화가 우려되나 당분간 사업 여건 변화 가능성을 지켜봐야 할 것
- 소규모 혹은 신용도 낮은 영국 소재 거래선은 도산 위험이 있음.
- 유로화나 파운드화 약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 영국 소재 고객에 대한 거래조건 변경으로 인한 부대비용 발생 가능성 있음.

## ○ (B社 슬로바키아 생산법인 - 전자제품/디스플레이)

-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영국 내 소비 감소로 수출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 현 단계에서 영향의 정도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속단은 어려우며 향후 추이를 지켜볼 예정

## ○ (C社 폴란드 생산법인 - 전자제품)

- 폴란드에 가전 제조라인이 있어 폴란드에서 영국으로 일부 수출 중
- 영국이 EU 탈퇴 협상을 진행하는 2년 동안은 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협상 또한 충분히 충격을 흡수할 만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D社 헝가리 생산법인 - 타이어)

- 중장기적으로 영국이 노르웨이 모델 내지는 터키관세동맹 등을 선택하여 최소 비관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자사의 매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

&lt; 브렉시트 이후 영-EU와의 관계 전망 &gt;

| 유형        | 시행<br>국가   | 상품<br>무관세 | 원산지<br>규정회피 | 단일<br>시장 | 은행업<br>진출 | EU<br>규제 | 독자적<br>무역협상 | 분담금 | 이민<br>통제 |
|-----------|------------|-----------|-------------|----------|-----------|----------|-------------|-----|----------|
| EEA<br>협정 | 노르<br>웨이   | ○         | ○           | ○        | ○         | ○        | x           | ○   | x        |
| 관세<br>동맹  | 터키         | ○         | ○           | x        | x         | x        | x           | x   | x        |
| FTA<br>협상 | 일부<br>역외국  | ○         | x           | x        | x         | x        | ○           | x   | ○        |
| 쌍무<br>협상  | 스위스        | ○         | x           | x        | x         | x        | ○           | ○   | ?        |
| 최혜국<br>대우 | 대부분<br>역외국 | x         | x           | x        | x         | x        | ○           | x   | ○        |

## ○ (E社 슬로바키아 생산법인 - 자동차)

- 슬로바키아 공장은 연간 34만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약 15%인 5만대를 영국에 수출
- 파운드화 결제 시스템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파운드화 약세에 따른 손실과 영국의 구매력 약화가 불가피, 불확실성에 대한 소비 위축 등이 자동차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지 공장 생산량 감축 등 현지 활동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판단

- 현 시점에서 브렉시트의 영향을 속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추이를 살펴보며 대책 마련 예정
- (F社 폴란드 판매법인 - 자동차)
  - 단기적으로는 요동치는 환율 때문에 영국에서의 판매가 다소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브렉시트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대응에 따라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지속 모니터링 중
- (G社 함부르크 물류법인 - 물류)
  - 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2년 이상 걸리는 만큼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전망을 내 놓기 어려우나, 영국으로의 각종 관세·비관세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향후 업무 부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일례로, 현재 非EU국인 노르웨이로 물품 운송도 까다로운 점에 미루어 볼 때 영국의 운송환경 또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다수의 글로벌 해운기업과 조선소들은 런던에 유럽본부를 설립, 운영 중인데 브렉시트로 인해 독일 등 EU 역내로 이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당사에서는 브렉시트에 따른 운송절차, 조건, 규정 관련 변동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작업에 착수함.
- (H社 함부르크 물류법인 - 물류)
  - 한국에서 영국 및 EU로 자동차 물량을 운송하고 있는데, 브렉시트로 한-EU FTA 효과가 사라지면 對영국 수출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닛산, 토요타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영국에 공장을 운영 중으로 EU-영국간 관세가 발생하면 영국 소재 일본 자동차 생산 업체의 對유럽 자동차 수출물량도 감소할 전망

**< KOTRA 유럽지역본부 주요 지상사 설문조사 결과(6.9~16, 38개사 대상) >**

- 응답자의 45%가 추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답변
- 부정적 응답 주요사유 : i) 영국의 EU회원국 상실로 인한 상이한 인증·규제(53%),  
ii) 관세율 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41%)

## 5. 유럽 바이어 및 투자가 반응

- 공통적으로 “예상 밖의 결과”에 놀라는 반응이나, EU 탈퇴절차에 필요한 2년간은 EU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영국과의 교역에 당장의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도 영국과 교역을 하는 주요국에 대한 악영향은 불가피하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EU국보다는 영국에 더 큰 영향 예상
  - \* EU 주요국 역내교역비중('15) : 영국(46%)로 EU회원국 중 최저
  - \* 영국 무역 중 EU의 비중('15) : 對EU 수출은 총수출의 43.7%(2,230억£), 對EU 수입은 총수입의 53.1%(2,910억£)
- 영국정부-EU간 협상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단계별로 대응책 마련 계획
- EU 바이어들은 환율 불안정 및 관세변화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으로 영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 축소 가능성 시사
- 영국에 유럽본부 운영 중인 투자가들은 EU회원국으로의 본부이전 가능성 시사
  - \* EU역외국 기업의 유럽지역본부 중 50%가 영국 소재
  - \* 영국내 유럽지역본부 운영은 영어 사용, EU 시장에 대한 관문 역할 이점에 따른 것

### ○ (독일 경제인협회) Christoph Schmidt 회장

- 독일과 영국이 매우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를 가지고는 있으나, 브렉시트에 따른 악영향은 독일이나 기타 EU국가에는 크지 않을 것
- 오히려 영국이 받는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EU로 수출하는 영국 내(영국 또는 제3국 진출기업) 기업에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됨.
- 영국으로부터 유럽진출거점 이전 가능성은 일부 업계에서 이미 거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계획 변동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는 시기상조이며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 ○ (독일 I社 - 자동차 생산)

- 영국자동차시장 내 자사의 점유율은 약 9%로 영국은 중요한 시장. 현재 영국 내 생산 공장이 없는 관계로 브렉시트로 분명 영업실적에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을 전망
- 금일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구체적인 대응책 등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영국과 EU의 주요 협상 내용 등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할 예정

### ○ (독일 J社 - 자동차 생산)

- 내부적으로 아직 경영전략 회의는 없었음.
- 영국에 자사 계열사 2개의 공장이 소재하여 향후 관세율 변화에 따른 EU역내로부터의 부품수입 및 EU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 ○ (독일 K社 - 자동차부품 생산)

- 원소재를 영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향후 수입물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브렉시트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

### ○ (독일 L社 - 건설)

- 건설 기자재 일부분을 영국에서 수입해 옴. 브렉시트에 따라 향후 영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EU내 대체 공급자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임. 단, 현재 유럽 건설경기가 호황이고 EU내 대체기업이 많아,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

### ○ (독일 M社 - 항공기 생산)

-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함, 영국 시장에 대한 기존 투자계획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며, 이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됨.

### ○ (프랑스 N社 - 자동차 생산)

- 현재 경영전략 회의 개최 중
- 영국 시장 점유율은 약 4.3%로 영국 내 생산 공장이 없어 영국으로의 자동차 수출규모 감소 전망
- 영국 현지에 생산 공장이 있는 닛산,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제조사에 비해 경쟁력 하락이 우려됨.



### ○ (프랑스 O社 - 항공기 생산>

- 영국 웨일즈에 소재한 생산 공장의 생산량은 일시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브렉시트로 인해 점차적으로 관세, 세금 및 각종 인증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장의 프랑스 이전을 검토할 수 있음.
- 향후 대책에 대한 언급은 시기상조이며 향후 추이를 지켜볼 예정

### ○ (벨기에 P社 - 산업용장갑 수입)

- 브렉시트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향후 영국이 아닌 EU 역내에서 공급선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됨.

### ○ (이탈리아 Q社 - 자동차 생산)

- 2014년 10월 영국 런던으로 본사를 이전한 바 브렉시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
- 추후 대책을 위한 공식 회의는 아직 없으나, 본사를 EU 역내로 재이전하는 방안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

### ○ (이탈리아 R社 - 방산)

- 헬기 및 레이더, 센서 제조 등 산하 계열사의 영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 KOTRA 유럽지역본부 주요 바이어 설문조사 결과(6.9~16, 103개사 대상) >

- 응답자의 49%가 브렉시트 발생시 비즈니스에 '부정적 영향 있음' 답변
- 주요사유 : 관세율 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부정적영향 있음 응답자의 80%)
- 향후 계획 : 영국과의 비즈니스를 축소(가격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든 응답자의 55%)

## III

## 기타 주요국

## 1. 미국

## □ 현지 시장 반응

## ○ (주가) 뉴욕증시 3~4% 폭락 마감

- 브렉시트의 여파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2~3% 급락하며 개장
  - \* 헤지펀드계의 대부인 조지 소로스는 6.20일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글로벌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정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음.
- 다우지수가 600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나스닥도 2011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3대 지수가 3~4%의 가파른 하락세로 마감
- 많은 금융기업들이 런던에서 빠져 나가거나 런던 금융권의 대규모 고용축소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런던에 유럽 운영 본부를 둔 대형 금융회사의 주가가 가장 큰 타격
  - \* Barclays △20.48%, Lloyeds Bank △23.27%, RBS △27.50%, Morgan Stanley △10.15%, Citigroup △9.36%, Goldman Sachs △7.07%, Invesco △13.67%
- 무디스는 영국의 자동차, 제조, 식품 분야가 더 높은 무역장벽과 수요 감소로 어려워질 것으로 경고했으며 규제강화 가능성은 통신, 항공, 의약품 분야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
  - \* 영국에 1만 4천명의 직원을 둔 포드社의 주가는 6.57% 하락을 기록
- 영국 사업 비중이 큰 미국기업 BorgWarner, CF Industries, Priceline 등도 각각 9.50%, 8.00%, 11.37%의 주가 하락
-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주택 구매 수요 감소로 건축분야도 주가 하락 주요 품목

## &lt; 뉴욕 증시 주요 지수 &gt;

| 구분     | 지수        | 증감(포인트) | 증감률(%) |
|--------|-----------|---------|--------|
| 다우     | 17,399.86 | △611.21 | △3.39% |
| 나스닥    | 4,707.98  | △202.06 | △4.12% |
| S&P500 | 2,037.30  | △76.02  | △3.60% |

\* 뉴욕 시간 6월 24일 오후 4시 마감 기준

## ○ (환율) 달러·엔화 가치 상승하고 유로·파운드 급락

-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폭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해 달러, 엔화 가치가 상승한 반면 유로화는 하락
- \*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86.57로 1.67% 상승(뉴욕 시간 6월 24일 오후 3시 17분 기준)
-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며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8.34% 하락을 보여 30년 만에 최저치인 달러당 1.36 파운드 기록

### < 주요국 환율 >

| 통 화          | 환 율     | 증 감 률  |
|--------------|---------|--------|
| 유로(EUR/USD)  | 1.1133  | △2.20% |
| 파운드(GBP/USD) | 1.3635  | △8.34% |
| 원(USD/KRW)   | 1173.76 | 2.80%  |
| 엔(USD/JPY)   | 102.25  | △3.67% |

\* 뉴욕 시간 6월 24일 오후 3시 17분 기준

## ○ (상품거래) 안전자산 선호도 증가로 유가 하락, 금 가격 급등

- 브렉시트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8월물 선물 가격이 배럴당 2.47달러(4.9%) 하락한 47.64달러 기록
- \* 뉴욕 시간 6월 24일 오후 3시 30분 기준
- 안전자산 매수 강세로 뉴욕상품거래소 8월물 금 가격이 전날보다 온스당 59.30달러(4.7%) 상승, 1,322.40 달러에 마감돼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 경신

## ○ (금리) 월가, 브렉시트로 올해 금리인상 없을 전망, 금리 인하 고개 들어

- 연준의 6월 발표가 예전에 비해 더 비둘기적(금리동결)으로 나타난데 이어, 엘런 의장의 브렉시트 우려(미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가 현실화 되면서 7월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판단

- 연방기금 선물(Federal Fund Futures)은 7월의 금리인상 가능성은 0%로 전망하는 대신, 금리인하 가능성을 10%로 전망
- 시카고선물거래소(CME)의 선물거래자들의 금리인상 전망은 7월, 9월, 11월 모두 0%로 나타나며, 12월 인상 가능성도 기존의 56.2%에서 16.3%로 낮아져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
- 반면, 12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11.9%로 나타나 브렉시트의 영향이 장기화되고 심화될 경우 금리인하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할 전망

## □ 정부 반응

\* 미국 정부는 영국 국민의 결정을 존중하는 발표만 있고 부정적인 의견 제시는 없음.

### ○ 오바마 대통령,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할 것

- 오바마 대통령은 Global Entrepreneurship Summit(스탠포드대학) 연설에서 브렉시트 투표 이후 영국의 캐머런 총리와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통화를 했으며,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팀들은 최근 수 주간 긴밀히 이들 국가들과 접촉했으며 향후에도 경제 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확실시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
- 아울러 영국과 EU와의 관계는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간의 특별한 관계라고 강조. 또한 다원성, 민주주의, 공평한 기회 등과 같은 공유된 가치와 나토를 통한 동맹은 지속적으로 미국, 영국, EU를 결집시킬 것이라고 강조

### ○ 미국 재무부, 영국 및 EU와 경제 안정과 번영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

- 제이콥 루 재무장관, 최근 수 주 동안 영국과 EU와 주기적으로 접촉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경제가 안정되고 번영하도록 영국과 EU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

-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영국, EU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참가자들과 긴밀하게 상의할 예정. 특히 경제 성장의 열쇠인 금융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을 영국과 다른 국가의 정책책임자들과 논의할 예정

#### ○ 미국 연준, 달러 유동성에 대한 준비 완료

-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자금시장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필요시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과의 통화 스와프를 통해 달러 유동성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표

#### ○ 엘런 연준 의장, 브렉시트가 미국 경제에 상당한 파문 전망 누차 언급

- 6월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동결이후 기자회견(6.15일)에서 브렉시트 가능성이 금리동결의 주요 원인으로 발표
- 미국 의회 상원 은행위원회(6.21-22일)에서 브렉시트가 향후 미국 경제에 “상당한 파문을 만들 수 있을 것”(could have significant economic repercussions)이라고 강조, 그러나 브렉시트로 인해 미국 경제가 침체기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 □ 미국 주요기업의 반응

\* 브렉시트가 알려진 당일이라 기업들의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음.

#### 1) Caterpillar

- (반응/영향) 하나의 시장으로서 접근성 유지를 위한 빠른 합의 요구
  - EU를 떠나고자 하는 영국 국민과 정부의 결정을 인지하며 존중
  - 영국과 EU 전역에서 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제조기업으로서, 영국 정부와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합의를 위한 협상으로 신속히 나아가길 촉구

- 영국은 Caterpillar의 공급 체인의 필수 요소이므로 불확실성을 빠르게 제거함으로써 영국이 하나의 시장을 오고 갈 수 있는 완전한 접근성을 유지하고 영국에서의 강도 높은 집중과 투자를 통한 영업이익을 보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를 요구
- 비즈니스와 영국과 유럽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시장으로서의 접근성에 대한 이슈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
- (향후 대책) 영국 내 사업에 집중하며 타격 최소화 방법 모색 예정
  - Mark Dorsett 영국 총괄 책임자에 따르면, Caterpillar는 영국에서의 경쟁력 있는 입지에 전념을 지속하며 통합된 공급망 내의 소비자, 직원, 주주, 파트너들에게 미치는 브렉시트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성실히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힘.

## 2) Ford Motor Company

- (반응/영향) 영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으로 브렉시트 상황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책 마련을 고심
  - 투표결과가 발표된 직후 24일 오전 성명을 통해 “유럽과 영국에서의 비즈니스가 안정적인 수익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포드의 글로벌 시장 전체 매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8.8%에 달해 포드에게 영국은 매우 의미 있는 시장임.
  - 포드는 그동안 브렉시트를 반대해 왔고, 투표 전까지 상황을 주시하며 브렉시트 상황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왔음.
- (향후 대책) 24일 현재 포드가 공개한 구체적인 브렉시트 대책 방안은 없음.

- 기존 투자계획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확실한 증거가 포착되기 전까지는 현재 투자계획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하지만 파운드화 하락과 관련 산업 약세가 전체적인 사업 운영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일부 언론들은 영국에 1만 4000여 명 규모의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포드가 브렉시트 이후 정리해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

### 3) Penske Automotive Group, Inc.

- (반응/영향) 영국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33.4%로 영향 매우 클 전망
  - 영국에 럭셔리 차량 딜러샵을 운영하고 있어 브렉시트로 인해 동사의 매출액(193억 달러)의 33.4%를 차지하는 영국 매출액(64억 달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돼 미국 기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미시간주에 본사를 둔 동사의 주식가격은 24일 중 10% 하락했으며 최근 영국 영업망을 확장, 영국에 전체 349개 프랜차이즈 중 170개를 보유 중
- (향후 대책) 24일 현재 동사의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 수석부사장 Tony Pordon은 브렉시트로 인한 가장 큰 위험은 외화 환산(currency translation)이지만, 동사의 영국내 강력한 비즈니스와 경영진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We just wait and see, because it's an unprecedented event)”고 언급

## 2. 일본

### □ 현지 시장 반응

- 6월 24일 닛케이 평균 종가 전일 대비 1,286.33엔 떨어진 14,952엔으로 마감, '14.10.21 이후 약 1년 8개월만의 최저치로 16년 2개월만의 최대 하락, 하락폭 역대 8번째
  - 직전 여론 조사에서는 잔류파 우세라는 견해가 많아, 아침의 닛케이 시장은 전일 구미 주가 상승 영향 등으로 매수가 선행
  - 그러나 실제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점차 이탈파가 유리한 정세로 자리 잡아, 헤지펀드 등과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매도 추세가 전개
- 닛케이는 전면 하락하는 와중 유럽 관련주의 하락이 특히 두드러짐.
  - '니혼이타가라스(Nippon Sheet Glass Company, 일본판초자)\*의 하락을 선두로, 'DMG MORI 정밀 기계'와 '마쓰다'도 10% 이상 하락
    - \* 니혼이타가라스 : 판유리 세계 시장 2위 기업으로 신흥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 영국 대형 유리사인 필킹턴을 2006년 인수한 기업
    - \* DMG MORI 정밀 기계 : NC선반, 머시닝센터 글로벌 최대 규모 기업, 독일 DMG를 자회사화, 합병이 최종 목표인 기업
  - 토요타, 닛산자동차, 도시바와 히타치도 대폭 하락
  - 선물 주도로 하락하는 가운데 패스트리테일링, 파낙 등 지수에 대한 기여도가 큰 종목도 급락
- 6.24 환율은 일시 1달러=99엔으로 '13년 11월 이후 최고치 기록
  - 일본 기업은 '16년도 예상 환율을 1달러=105~110엔, 1유로=120~125엔으로 전반적으로 전망, 최근 엔화 환율은 전망을 웃도는 수준으로, 수출 기업은 엔고에 의한 실적 하락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



- '16년 주요 기업 200개사의 경우, 달러 대비 1엔 엔고가 진행되면 경상이익에서 0.5% 정도의 이익 감소요인이 된다는 분석이 존재
  - \* 토요타는 1엔 엔고가 진행되면 영업 이익에서 달러대비 400억 엔, 유로 대비 40억 엔의 이익 감소 요인이 됨.
  - \* 브릿지스톤은 1엔 엔고 진행 시 달러대비 32억 엔, 유로 대비 3억 엔의 이익 감소 요인이 됨.
  - \* 다이킨공업은 1엔 엔고 진행시 달러대비 14억 엔, 유로 대비 5억 엔의 이익 하락 압력이 나타남.
- 브렉시트에 따른 엔고의 역풍과 더불어 중국 경제 감속 우려도 남아 있어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강한 상황, 당분간 일본 수출 기업의 실적 하락 우려가 지속될 것

## □ 정부 반응

- 아베 총리, 24일 저녁 브렉시트 관련 관계 각료회의에서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금융 시장의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
  - 영국에서 사업 추진중인 일본 기업을 비롯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존재, 제대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 24일 오후에는 '세계 외환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 제대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 급격히 진행 중인 엔고에 환율 개입도 불사할 생각을 시사
- 아소 다로 재무상, 24일 저녁 브렉시트 관련 관계 각료회의에서 '외환시장의 급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 급격한 엔고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엔 매도 개입도 불사할 자세를 강조
  - 이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도 '필요한 때에 제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 아베 총리로부터 일본은행과 협력, G7과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
  - 환율 개입 단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만 언급

- 하야시 미키오 경제산업상, 브렉시트가 확실히 된 24일 오후 ‘일본과 유럽의 경제연계협정(EPA)의 연내 합의 목표 달성은 어려워진 것 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나타냄.
  -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발언, 대책을 지시했다고 경제산업성 내 기자단 질문에 답변
-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브렉시트가 확실히 된 24일 오후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조밀하게 진행하며 영국 국민 투표 결과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의견을 밝힘.
  - 6개국 중앙은행 간 스왑 동의도 활용하며 유동성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언, 시장의 안정 확보를 위해 노력할 방침을 보임.
- 나카소 히로시 일본은행 부총재, 24일 저녁 ‘달러 유동성 공급 구조는 견고하다’는 인식을 나타냄
  - 임시 금융 정책 결정 회의 개최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지 않겠다’고 답변. 하지만 각국 중앙은행과의 연계는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

## □ 주요 연구기관의 경제상황 전반 전망

- (미즈호종합연구소) 영국 진출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영국과 EU의 신규 경제 협정 방향에 달려있는 상황, 이탈에 의한 영향이 큰 영국의 수출 품목은 자동차, 항공기 부품, 전기기기 등이며 세율은 식료품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
- (라쿠텐증권경제연구소) 실물경제의 경우, 특히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
  - 토요타의 경우, 이번 분기 실적에서 환율은 1달러=105엔으로 예측, 1달러=100엔으로 추이하면 실적의 대폭 하락을 면치 못하는 상황으로, 1엔 엔고에 대한 달러기준 400억 엔 마이너스 전망이 유효할 것

- **(노무라증권)** 일본의 영국에 대한 실물 경제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무역 거래로 인한 영향은 경미, 그러나 금융·자본 시장의 혼란에 의한 주가 하락과 엔고를 통한 영향이 우려됨.
  - 일본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영국과의 거래 비중은 전체의 1.3%,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일반적
  - 그러나 105엔 정도에서 10엔의 엔고는 GDP를 0.2~0.3%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음.

## □ 일본 주요기업의 반응

- **(A社 - IT)** EU에 판매거점,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 특히 프랑스에서는 로봇 관련 지사를, 영국에는 통신 모바일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오늘 특별히 이들 해외거점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사내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일본시각 24일 오후 5시 반 직접 인터뷰 완료)
- **(B社 - 에너지)** 영국에는 재무조달 목적의 자회사가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 다만, 간접적으로는 원유가격의 하락과 엔고에 따라 원유 조달에는 플러스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전체로서는 마이너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자사는 한국 투자기업으로 한국 사업에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가 악화하면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일본시각 24일 오후 5시 반 직접 인터뷰 완료).
- **(C社 - IT)** 일본 D모기업의 자회사로, 영국 거점은 존재하지 않으나 해당국 관련 프로젝트는 D그룹사의 일환으로 진행 중, 현재까지는 사내에서 별다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 일본시각 24일 오후 5시 반 직접 인터뷰 완료)
- **(주식회사 KWBS - 마케팅&무역\*)** 가장 큰 문제는 강한 엔고 추세로의 돌입, 리먼 사태 수준이라고 생각됨.

- \* 일본 기업의 영국 직접투자 및 합작사업 등 약 300건 프로젝트를 지원한 기업으로 현재는 더럼주 의회 투자 관련 단체 비즈니스더럼, 선더랜드시의회와 기업유치 및 수탁사업 계약을 체결, 영국에 기 투자·진출한 일본기업 상황 전반에 관하여 쿠모리 마사오 대표와 인터뷰 진행

## □ 브렉시트가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전망

### 1) 일본과 영국 간 무역 동향

- 하루 낙폭으로는 최대 엔고를 기록, 순조롭게 추이하고 있던 일영 무역의 추후 급등락을 통한 축소위기가 느껴짐.
- 일본과 EU EPA 협상에의 악영향도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무역 결제 등을 포함한 유럽 금융시장 중심 기능은 아일랜드 혹은 프랑크푸르트로 이전될 것이라 생각

### 2) 일본기업의 매출에의 영향

- (닛산) 영국판매 15~20 : EU 역내 판매 85~80 의 비율, 향후 관세 부과 시 영국에서의 판매 감소는 확실히 EU에서의 매출 감소로 나타날 것
- (토요타) 브렉시트의 경우 매출 등 비즈니스 관련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잔류를 희망하는 분위기를 보였으나 결국 브렉시트 현실화로 유감인 결과가 나타남.
- 연간 19만대 생산 중 75%를 EU에 수출하고 있었던 상황, 향후 관세 등 협상을 진행하며 영국 생산 등 생산거점 조정을 심각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임.
- 영국이 EU와 관세 협상 등을 타결시키는 데에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이기에 그 시간 동안 심사숙고할 것임.
- 자동차 환경 규제는 영국보다 EU 본토가 더 엄격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증가하고 이익률도 감소할 우려가 존재

### 3) 경영전략에의 영향

- 세계화와 FTA, EPA 등 경제 협력 협정이 근본적으로 동요, 시장이 폐쇄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분위기

- (닛산) 생산 대수와 차종의 감소를 검토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영국에 본사를 둘 것인지 여부, 대 EU 전략 근본적 재검토 여지가 보임.
- 르노와도 면밀하게 연계해가며 검토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석유화학계기업) 잔류를 기대하고 예측하던 상황이므로, 향후의 사업 활동과 계획을 재검토 할 것으로 보임.
- (토요타) 글로벌 최적 생산 기지를 찾아 경쟁력 유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을 재검토 할 것임.

#### 4) 공장 등 생산거점 이동 문제

- (히타치) 고속전철 차량공장의 계열사에서의 출자 등을 통한 사업 확장을 고려해왔지만, 이번 이탈결정으로 EU 본토에서 수주한 차량은 이탈리아 공장에서의 생산으로, 영국 내에서의 생산은 영국 수요만을 대응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영국 국민투표 이전에는 영국에서의 EU로의 수출을 검토해왔지만 영국에서의 생산 확대 자체를 재검토하게 될 것
- (토요타) 전략 소형차인 야리스의 엔진 공장이 영국, 프랑스, 헝가리 세 곳에 존재, 유럽 전역의 자동차 시장에 공급되고 있던 상황으로 향후 영국 자동차 산업 동향을 연구하며 적지 생산을 실시해 나갈 가능성이 높음.

### 3. 중국

#### □ 현지 시장 반응

- (환율) 위안화 환율 소폭 상승, 단기 약세 불가피 전망
  - 6월 24일 중국 위안화 환율 평균가는 전일 6.5658 대비 0.18% 상승, 6.5776 기록
  - 15시 기준 위안화 환율은 6.6285, 역외 환율은 6.6515까지 급등
  - “브렉시트가 중국에게는 갑자기 날아든 ‘블랙스완’, 미달러 강세에 따른 위안화의 단기 약세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중당기관지 신화사)
  -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의 폭락을 좌시하지 않겠지만 단기 평가 절하는 불가피(中 제일재경일보)
- 홍콩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상하이 종합지수 하락폭은 제한적
  - 홍콩과 영국의 경제적 유대로 인해 홍콩 주식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우려 고조
    - \* 홍콩 항생(恒生)지수는 6월 24일 2.92% 하락한 2만 259.130로 장 마감
  - 영국계 지분이 높고, 홍콩에서 상장한 기업의 주가 하락폭 큰 편
    - \* (ex): 창장인프라(長江基建): -5.48%, 레노보: -1.67%
  - 한편, 상하이 종합지수는 브렉시트 확정 이후 3%가까지 급락 후 전일대비 1.3% 하락한 2,854로 장 마감
  - 가장 큰 낙폭을 보인 업종은 환경보호 관련주(-1.96%), 농수산임업주(-1.64%) 등으로 브렉시트에 따른 폭락 현상은 나타나지 않음.
-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 차질 생길수도
  -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최근 핵심전략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런던은 위안화 국제화 전략의 핵심 거점
    - \* 최근 런던은 홍콩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위안화 거래소로 자리매김
  - 영국을 거점으로 위안화의 EU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중국의 장기전략 차질

## □ 정부 반응

- 중국 외교부 : 영국의 선택 존중, 영-EU 조속한 협상 개시 희망
  - 중국 외교부는 화춘잉 대변인을 통해 24일 영국 브렉시트에 대한 간략한 공식 입장을 발표함.
  -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영국의 선택을 존중하며, 영국과 EU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번영과 안정을 이루기를 희망한다는 내용과 함께 중국은 영국 및 EU와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 “중국 최대 교역파트너인 EU의 경기둔화 초래, 중국에도 불리”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국제협력실 장젠핑(張建平) 주임)
  - 브렉시트는 파운드화와 유로화 평가절하, 영국과 EU의 경기둔화를 초래할 가능성 높음.
  - EU는 중국의 최대 교역파트너이고, 영국은 EU내 중국 2대 교역국으로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 주요 거점으로 발전 중
  - 중국 대외무역과 중국기업의 對EU 투자 등에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
- 중국 인민은행 : 자국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
  - 중국 인민은행은 이번 브렉시트가 가져올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한편, 안정적이며 다양한 화폐정책, 유동성 확보정책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여 자국 금융시장 보고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함.
- \* 최종적으로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 안정화 및 위안화 국제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
- 중국 사회과학원
  - (對영국 투자 일시 감소 가능성 존재) 영국은 EU 국가 중 중국과의 교역이 가장 활발한 국가\*이며, 중국기업의 EU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해옴. 영국의 EU 탈퇴 후 기존관세혜택의 지속가능성, 산업별 EU 표준 적용여부, 시장규모\*\* 등의 변화가 있을 예정임에 따라 영국에 EU 본부 설립 등 기 투자한 기업 중 일부는 탈영국 등의 대책을 구비할 가능성이 있음.

\* 영국은 EU 국가 중 독일 다음으로 중국과 교역량이 많으며, 대중국 투자국가 중 9위를 차지하고 있음.

\*\* (인구수 기준 시장규모) 영국 6,500만 명, EU 5억 명

- 그러나 그간 중-영 간 문화, 과학기술, 기초설비 등 산업 협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탈영국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
- (EU 내 위안화 국제화 중심지 변동 가능성) 영국은 홍콩 다음으로 위안화역외청산의 중심지이며, 전 세계 외환거래의 41%를 차지함. 그러나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을 통한 위안화의 EU 시장 확산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전망임에 따라 위안화 중심지가 파리, 프랑크푸르트, 룩셈부르크 등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음.

## □ 중국 주요기업의 반응

- “추진 중인 고속철 프로젝트 차질”(CRRC 영국지사 덩바오(丁彪)총경리)
  - 영국에 고속철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CRRC社는 브렉시트에 따라 파운드 하락, 경기 침체 및 영국 정부와의 협조 난맥상 등 전망
  - CRRC는 2015년 5월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같은 해 10월(시 주석訪英) 영국의 제2고속철도 프로젝트에 500억 파운드 투자
  - 특히, 브렉시트가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완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中 제일재경일보 6.24 보도 재인용)

### < 세계 최대 고속철 기업 CRRC(中國中車集團) >

- \* '15년 6월 중국 양대 고속철 기업인 중국남차(中國南車 CSR)와 중국북차(中國北車 CNR) 합병으로 탄생한 공룡기업, 영국지사는 한 달 전인 5월에 설립
- \* 자산규모 약 3천억 위안(약 54조 원)
- \* '15년 해외수주규모 70억~80억 달러, 중국 ‘고속철 굴기’ 전략의 첨병 역할

## ○ “對영국 투자를 확대해오던 중국 부동산 그룹 직격탄”

- 최근 중국 부동산 그룹이 영국 투자를 늘이는 상황에서 브렉시트에



따른 파운드화 평가절하와 경기둔화로 관련 투자자들은 직격탄을 맞을 전망(완다(萬達)그룹)

- 중국 완다그룹은 2013년부터 영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옴.
- \* 완다그룹은 2013년, 2014년 영국 관광레저, 부동산 등 분야에 각각 10억, 40억 파운드를 투자
- \*\* 올 3월, 영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中 제일재경일보 6.24 보도 재인용)

**< 시진핑 주석 ‘15년 10월 訪英 경제분야 주요성과 >**

- 400억 파운드 규모, 150개 프로젝트 추진
- 중국광핵 그룹, 힌클린 포인트 원전건설 참여
- 지리(吉利)그룹 5천만 파운드 추가 투자, R&D 센터 걸립
- 민영기업 중푸(中富) 그룹, 20억 파운드 규모의 영국 리조트 프로젝트 발표
- 페트로차이나, BP와 제3시장 합작협약 체결
- 연리 3.1%, 1년 만기 위안화국채 발행, 통화스압규모 3500억 위안으로 증액
- CMC, 멀린과 상하이에 레고랜드 건설
- 영국, 중국인 관광객에 2년 복수비자 제공

○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나 영향은 제한적”(중국 상무부 외무발전국 전화 인터뷰)

-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 경기 둔화 등으로 영국과 거래중인 중국기업들도 영향 불가피
- 하지만, 對영국 수출비중이 높지 않으며\* 금융 시장의 낮은 개방도로 여타 아시아국가에 비해 충격과는 상대적으로 낮을 전망
- \* 금년 1-5월 누계기준 중국의 對영국 수출 비중은 2.58%, 9위
- 영국과 거래중인 수 곳의 기업대표와 전화 인터뷰 결과, 1) 영국과의 거래 비중, 2) 파운드화 평가절하 영향 등에 따라서 기업별 손익은 상이하며,
- 일부 수입 품목은 파운드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확대 및 유럽

여행 여우커들의 영국행에 따른 수혜도 기대 가능하다고 응답

- 환율 및 경기 문제 외에 가장 우려되는 점은 브렉시트와 관련, 영국의 정책적 혼선과 비즈니스상의 예측불가성이 확대 된다는 점

○ 광명식품유한공사 상하이 본사 해외사업부

- (반응/영향) 2012년 영국 Weetabix Food의 60% 지분을 인수한 후 광명식품의 EU 시장 점유율, 판매 네트워크는 지속적인 확장을 누려옴. 그러나 브렉시트로 영국 시장의 투자가치가 다소 상실될 가능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영국을 기반으로 한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특히 영국-EU 간 적용되었던 관세 등 무역자유화, 통일된 산업 표준, 투자 장벽 완화 등의 이점이 철폐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경우 광명의 EU 시장 진출 전략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광명식품의 해외영업수익이 전체 수익(1,474억 위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영국의 다국적 식품기업인 Weetabix의 지분 인수 후 증가폭이 확대됨.

< [참고] 현지 경제전문가 인터뷰 : 정다증권(正大證券) 수석애널리스트 >

- (단기적 영향) 유로화, 파운드 등 환율시장 불안정성 확대로 중국기업의 對EU 무역, 투자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은 있음.
- (중장기적 영향) 미 달러 대비 유로화, 파운드, 위안화의 가치가 모두 하락하게 될 것 이나, 그 중 위안화의 절하폭이 제일 작을 것으로 보임. 동시에 유로화, 파운드 대비 위안화 환율 하락할 경우 중국 기업의 수출 채산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對영국 투자 영향) 현재 중국의 국내산업 과잉투자, 국내실물자산 거품확대,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 등으로 기업자산을 유로화, 달러화 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해외투자의 증가를 가져옴. 단기적으로 對영국 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파운드 가치하락이 영국 내 투자비용 상승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어 영국 및 EU에 대한 투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작성자

|           |        |
|-----------|--------|
| ◆ 런던 무역관  | 박은경 차장 |
| ◆ 뉴욕 무역관  | 장용훈 과장 |
| ◆ 도쿄 무역관  | 이세경 과장 |
| ◆ 베이징 무역관 | 정진우 과장 |
| ◆ 상하이 무역관 | 강민주 과장 |
| ◆ 유럽지역본부  | 이수영 차장 |
| ◆ 구미팀     | 안 령 사원 |
|           | 강지숙 사원 |



Global Market Report 16-033

## 2016 브렉시트 결정 이후 주요국·기업 반응 조사

|       |                           |
|-------|---------------------------|
| 발 행 인 | 김재홍                       |
| 발 행 처 | KOTRA                     |
| 발 행 일 | 2016년 6월 27일              |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br>(06792) |
| 전 화   | 02) 1600-7119(대표)         |
| 홈페이지  | www.kotra.or.kr           |

ISBN : 979-11-87219-68-2 (95320)

Copyright © 201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Global Market Report

---

# 2016 브렉시트 결정 이후 주요국·기업 반응 조사

---